

## 창조경제를 리드할 중소환경기업과 함께하는 제3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13) 성황리에 마쳐...

- 총 23개국 310업체가 참가하여 '염분제거음식물처리기',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코란도C', '물 안쓰는 소변기' 등 약 2천여 종의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 중국, 독일, 덴마크 등 해외업체 특별 국가관 구성 직접 참가
-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3개국 1,414명의 해외바이어 참가, 약 2천억 원 이상의 수출계약 전망
- 녹색기업과 함께하는 청년취업박람회, 해외바이어 B2B네트워킹 행사, 한·중 환경산업교류 좌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동시 개최

〈 편집부 〉



국내·외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한자리에 선보인 창조경제를 리드할 환경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제3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EX2013)」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 B홀(14,800m<sup>2</sup>)에서 총 23개국 310업체(780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14일 막을 내렸다.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및 단체의 후원으로 국가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판로확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제거기술과 같은 기업수요형 기술 뿐만 아니라, 염분제거 음식물처리기, 물 안쓰는 소변기, 전기자동차,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기 등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신제품 등 총 2천 여종이 전시되었으며, 국내 환경산업체에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산업 수출 전략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함으로써 국내 환경산업체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해외진출이 유망한 43개 국가의 구매력이 큰 해외바이어 581명을 선별, 직접 초청하여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현장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활발한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ENVEEX에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물론 중국, 독일, 덴마크 및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특별 기업관 및 국가관"이 구성되어 참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ENVEEX 역사상 최초로 34부스가 참가하였다. 총 43개국 1,414명의 해외바이어가 전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사전 비즈니스 매칭과 해외바이어네트워크 행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해외바이어 초청은 그동안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참가업체들의 상담액과 계약액을 살펴보면 상담액이 5,622억원, 계약(추진)액이 2,211억원에 이르는 등 전시회가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 및 제품판매에 커다란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등 친환경 분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녹색기업과 함께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동시에 개최하여 기업체와 청년 구직자간 연결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동 행사를 통해 총 80업체의 업체에 3,223여 명의 매칭이 이루어 졌으며, 263명이 2차 채용면접이 확정되었다. 또한 환경보전협회 자문번호사(번호사 허범행)가 직접 전시장에 상주하면서

참여기업체 환경법률 자문을 하는 무료환경법률상담센터 운영과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전반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미래유망환경산업기술 세미나와 한·중 환경산업 교류좌담회, 덴마크 물기술 세미나, 국제환경산업기술 세미나 등)를 개최하여 전시회 방문기업이나 관람객에게 보다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년에는 총 56,030명이 전시장을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참가국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 총 23개국 310업체 중 국내업체는 201개, 외국업체는 109개사가 참가를 하였다. 출품물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질분야가 40%로 가장 많고, 측정분석기분야 18%, 대기 17% 등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 국가별 참가업체수 〉

참가국	한 국	중 국	독 일	일 본	미 국	덴 마크	영 국	핀 란드	프 랑스	캐 나다
총 계	310	201	29	23	11	8	5	4	3	3
오스트리아	3	3	2	2	2	1	1	1	1	1
노르웨이	3	3	2	2	2	1	1	1	1	1
이탈리아	2	2	2	2	1	1	1	1	1	1
E.U	2	2	2	2	1	1	1	1	1	1
스위스	2	2	2	2	1	1	1	1	1	1
호주	1	1	1	1	1	1	1	1	1	1
태국	1	1	1	1	1	1	1	1	1	1
이스라엘	1	1	1	1	1	1	1	1	1	1
아일랜드	1	1	1	1	1	1	1	1	1	1
네덜란드	1	1	1	1	1	1	1	1	1	1
스페인	1	1	1	1	1	1	1	1	1	1
말레이시아	1	1	1	1	1	1	1	1	1	1
헝가리	1	1	1	1	1	1	1	1	1	1

〈 표 2. 분야별 출품현황 〉

출품분야	업체수	수질분야	대기분야	폐기물분야
총 계	310	124	53	25
측정/분석기분야	56	15	3	34
그린에너지				
생태복원				
기관/교육/홍보				

내년 제36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EX 2014: 2014. 6. 10 ~ 13, 코엑스)은 한 차원 성숙된 모습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협회 임직원은 더욱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제품홍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협회 주관으로 중국상해국제환경보호전(IE-EXPO), 미국 수처리환경전(WEFTEC), 프랑스국제환경박람회(POLLUTEC), 말레이시아 환경전(IGEM) 등 주요 국제환경전에 한국관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 수처리환경전(WEFTEC, 10. 7~9), 프랑스국제환경박람회(POLLUTEC, 12. 3~5), 말레이시아 환경전(IGEM, 10. 10~13)에 참가하여 한국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환경무역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